FX Market Daily

2026-04-22

전일동향

전일대비 8.70원 하락한 1,468.5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8.70원 하락한 1,468.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80원 하락한 1,472.4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 확산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옅어진 데 하락 압력 받으며 1,468.5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5.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1.27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2.40	1473.30	1468.00	1468.50	1470.80
엔화	929.88	930.93	919.81	921.27	-
유로화	1740.94	1741.77	1720.93	1724.0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2	-3.69	-8.5	-16.29
결제환율(수입)	-0.23	-2.41	-6.29	-12.7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협상 난항에...1,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68.50) 대비 14.60원 상승한 1,481.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휴전 연장보다는 협상 실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에 초점을 맞추며 상승 예상한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하고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행 보류에 이어 이란 역시 협상 불참을 통보하며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인정할 의사가 없다고 경고하는 등 회담 무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재부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위험회피 분위기가 맞물리며 원화 약세 압력을 부추겨 금일 환율 상승할 전망이다. 협상 결렬이 확정될 경우 환율 상승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 발언이 연준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 물량 유입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6.75 ~ 1487.75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1564.58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4.60원↑
- ■ 美 다우지수 : 49149.38, -293.18p(-0.59%)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1.39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1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